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베트남 포도 -

2020. 01



[목 차]

I. 국내 시장동향	47
1. 생산현황	47
2. 유통현황	53
3. 소비현황	56
4. 수출현황	58
II. 베트남 시장동향	63
1. 생산현황	63
2. 유통현황	67
3. 소비현황	74
4. 수입현황	76
III. 시장현황비교분석	83
1. 시장현황비교	83
2. 수출국 시장분석	84
IV. 시장확대방안	86
1. 품목유망성	86
2. 시장확대방안	88

I. 국내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국내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주요 품종은 캠벨얼리, 거봉, MBA, 샤인머스켓, 텔라웨어 등이 있음

- 2018년 기준 캠벨얼리가 총 포도 재배면적의 52.7%를 차지하며 주로 생산됨
 - 다음으로 거봉(26.6%), MBA(9.4%), 샤인머스켓(7.4%), 텔라웨어(0.6%) 순이며 5개 품종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약 96.8%를 차지함
-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샤인머스켓의 2019년 재배면적은 1,706ha로, 전년도 953ha에서 79% 증가함
 -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의 소득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포도 수출품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샤인머스켓의 재배면적이 증가함

<표 I -1-1> 포도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	사진	주요 특징
캠벨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08년 도입됨 · 숙기가 8월 하순인 조생종으로, 과방은 원추형으로 400g 정도이고, 과립은 5.5g으로 중간 정도임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자흑색을 띠고, 과육은 육질이 질긴 편으로 과피와 분리가 잘 됨 · 과즙이 많고 완숙 시 당도는 14° Bx 정도이며 산미가 적음
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45년 도입됨 · 4배체 포도로 수세가 왕성하여 꽃떨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세조절에 노력해야함 · 숙기는 9월 중순으로 중생종이며 과방은 400g 정도, 과립은 난형으로 13g 정도임 · 과피는 자흑색이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는 18° Bx 이상임

<p>마스켓베 일리에이 (MB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62년 도입됨 • 숙기는 10월 상순으로 만생종이며 과방은 원추형으로 매우 큼 • 과립은 원형으로 6g의 중간정도 크기이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는 18° Bx로 머스켓 특유의 향기가 남
<p>델라웨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세가 강하며 결실성이 좋아 1 결과지당 3~4과방이 착과되며 꽃떨이 현상이 없음 • 숙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중생종이며 과방중은 120g 정도, 과립중은 2g 내외의 소립종임 • 과립은 원형으로 밀착성이며 과피는 적색임 • 과육은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으며 당도는 19° Bx임
<p>샤인 머스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1988년 개발한 품종으로 2006년 한국에서 처음 식재를 시작 • 껍질째 먹으며 씨가 없고, 특유의 망고향 때문에 ‘망고포도’ 라고도 불림 • 당도는 20° Bx로 높으며 과립중은 12~14g으로 큰 편임 • 과육은 크고 단단하며 씨가 없고, 과피는 황록색을 띠 • 저온 보관 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함
<p>피오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떨이 현상이 심하며 생육특성이 거봉과 비슷하나 잎 뒷면에 솜털이 없어 쉽게 구별됨 • 숙기가 9월 상·중순인 중생종이며 과방중은 400g 정도이고 과립중은 12g 내외인 대립종이며 과립은 난형임 • 거봉에 비해 과피는 검은색이 더 강하며 과육은 단단하고 과피와 과육의 분리가 어려움 • 당도는 17° Bx이고 산미가 적음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8년 국내 포도 생산량은 17만 5,399톤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함

- 이는 냉해피해로 인해 작황이 나빠진데 기인한 것이며, 2017년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폐업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I -1-2〉 2009~2018년 국내 포도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79,296	257,128	226,590	235,181	219,680	228,971	223,695	229,284	190,265	175,39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포도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전국의 포도 재배면적은 1만 2,795ha로, 2009년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포도 재배면적은 17,996ha로 2018년까지 연평균 3.7%씩 감소함
 - 이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포도 수입 증가, 작목전환 등에 기인하며, 2017년에는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년대비 역대 가장 큰 비율(12.3%)로 감소함

〈표 I -1-3〉 2009~2018년 국내 포도 재배면적

(단위: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996	17,572	17,445	17,181	16,931	16,348	15,397	14,946	13,107	12,795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 2018년 기준, 경상북도는 국내 포도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재배지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2018년 포도 재배면적은 6,769ha로 전체 재배면적의 52.9%를 차지함
 - 뒤이어 경기도(1,746ha), 충청북도(1,082ha), 전라북도(995ha) 순임

〈표 I -1-4〉 2018년 지역별 포도 재배면적

(단위 : ha)

순위	지역	재배면적	순위	지역	재배면적	순위	지역	재배면적
	전체	12,795	6	경상남도	304	12	세종특별자치시	58
1	경상북도	6,769	7	전라남도	275	13	광주광역시	25
2	경기도	1,746	8	강원도	254	14	제주도	6
3	충청북도	1,082	9	대전광역시	134	15	울산광역시	3
4	전라북도	995	10	인천광역시	129	16	서울특별시	1
5	충청남도	920	11	대구광역시	91	17	부산광역시	1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다. 작기 및 출하기

□ 포도 재배방식은 노지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노지에서 재배됨

- 2015년 시설재배 17.6%, 노지재배 82.4%에서 2018년 시설재배 14.5%, 노지재배 85.5%로 전체 면적이 감소하는 동시에 시설재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드나, 단경기 출하로 단가가 높음

〈표 I -1-5〉 2015~2018년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2018	비중
시설	2,707	17.6	2,240	15.0	1,942	14.8	1,857	14.5
노지	12,690	82.4	12,706	85.0	11,147	85.2	10,938	85.5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 시설재배 포도는 3~4월의 발아 및 신초생장기, 5~7월 중순의 개화 및 과립비대기, 7월 하순~8월의 성숙기와 9월~11월 상순의 수확 및 저장양분 축적기를 거침

- 노지재배 포도의 경우 보통 4월 하순에 발아하여 6월 상순에 개화하며, 8월 하순부터 9월 중 수확이 이루어짐

〈표 I -1-6〉 국내 포도 작기 및 출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아 및 신초생장기 ○ 개화 및 과립비대기 ▲ 성숙기 □ 수확 및 저장양분 축적기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

□ **숙기별로 출하시기에 차이가 있음**

- 캠벨얼리, 델라웨어 등이 해당하는 조생종의 경우 수확기가 7월 상순에서 8월 하순으로 가장 이르며 MBA 등이 해당하는 만생종의 경우 10월 상순에서 11월 상순으로 가장 늦음
- 샤인머스켓은 만생종에 속하며 출하기는 8월~다음 해 1월임

〈표 1-1-7〉 포도 숙기별 수확기

숙기	품종	재배비율(%)	수확기
조생종	캠벨얼리, 델라웨어, 홍단, 청수 등	71.5	7월상~8월하
중생종	거봉, 자옥, 대봉, 피오네 등	18.3	9월상~9월하
만생종	MBA, 세리단, 타노레드, 골든퀸 등	10.2	10월상~11월상

* 출처: 농업기술센터(agro.go.kr)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 유통되는 포도는 크기(무게), 색택, 신선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포도 중 크기(무게) 차이가 적고, 결점 없이 속도가 뛰어난 제품은 특 등급으로 분류됨
 - 특 등급의 경우 품종에 따라 무게 기준에 차이가 있음
 - 뒤이어 크기(무게) 차이가 30% 이하이며 결점이 적고 속도가 양호한 제품은 상 등급, 그 외 특·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중결점과는 이품종과, 부패 및 변질과, 미숙과, 병충해과, 상해과, 피해과 등이 있음
 - 경결점과는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낱알의 밀착도가 지나치거나 성긴 것,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등이 있음

〈표 I -1-8〉 국내 유통되는 포도의 표준규격

등급	특	상	보통
항목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표 I-1-9)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하기 크기 구분표(표 I-1-9)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게	캠벨얼리, MBA,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L, M인 것 거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M 이상인 것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	날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날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과를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포도 표준규격의 기준이 되는 크기(무게)는 하기와 같이 구분됨

〈표 I -1-9〉 국내 유통되는 포도 크기 구분

구분	2L	L	M	S	
1 송이의 무게(g)	MBA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50 이상	500 이상 650 미만	350 이상 500 미만	350 미만
	거봉, 네오마스캇, 다노레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500 이상	400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300 미만
	캠벨얼리 및 이와 유사한 품종	450 이상	350 이상 45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00 미만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00 이상	25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00 미만
	텔라웨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20 미만	100 미만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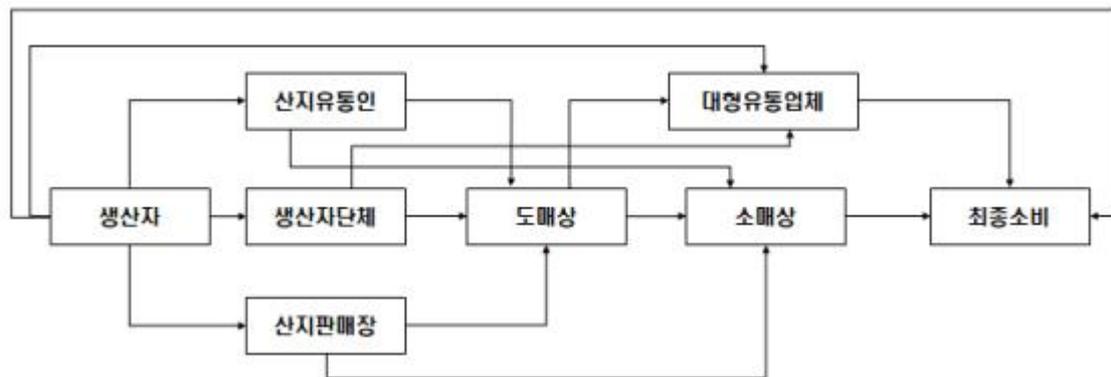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국내에서 포도는 대표적으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를 거쳐 유통됨

- 주요 출하처는 생산자단체로 전체 유통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다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로 연결됨
- 대형 유통업체의 점유율은 44%로,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도매시장 구매 비율은 감소하고, 산지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에서는 소비자의 수요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임
- 최근에는 온라인 및 지인을 통한 직접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포도의 주요 출하지역은 영천, 경산, 김천 등임

<그림 I-2-1> 국내 포도 유통경로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식품산업동향(nongsaro.go.kr)

2) 도·소매가격

□ 샤인머스켓을 제외하고 2018년 도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종은 거봉으로, 상품(上品) 기준 kg당 7,142원으로 집계됨

- 거봉은 2015년부터 도매가격이 증가하여 2018년 전년대비 약 13% 상승하였으며, 최근 6개년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4,543원/kg, 중품 3,516원/kg으로 집계됨

- 캠벨얼리의 kg당 도매가격이 4,608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입산 4,323원, MBA 3,788원 순임
- 캠벨얼리(상품 및 중품)의 도매가격은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여 최근 4년간 성장하고 있음
 - 캠벨얼리 상품의 최근 6년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971원, 중품 3,213원으로 나타남
- 수입산 상품 포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중품의 도매가격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MBA의 경우 상품과 중품 모두 2014년부터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평년 도매가격은 각각 2,592원/kg, 2,070원/kg으로 나타남
- 모든 품종과 등급에서 2018년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도매반입량 감소에 기인함

〈표 1 -2-1〉 2013~2018년 품종별 포도 평균 도매가격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상품	캠벨얼리	3,902	3,389	3,590	3,904	4,434	4,608	3,971
	거봉	5,917	4,980	4,831	5,210	6,318	7,142	4,543
	MBA	3,631	2,432	2,548	3,381	3,561	3,788	2,592
	수입	4,805	4,624	4,031	4,074	4,092	4,323	3,605
중품	캠벨얼리	3,174	2,694	2,898	3,067	3,662	3,784	3,213
	거봉	4,592	3,902	3,815	4,203	4,580	5,627	3,516
	MBA	3,063	1,894	1,986	2,704	2,771	3,131	2,070
	수입	5,378	4,085	3,491	3,582	3,559	3,629	3,349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샤인머스켓의 2018년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3,003원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포도 품종 중 가장 고가에 판매됨

- 샤인머스켓의 출하기인 7월~1월 내내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특히 11~12월의 도매가격이 약 16,000원/kg으로 가장 높음

〈표 1 -2-2〉 2018년 샤인머스켓 품종 월별 평균 도매가격 추이(상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023	-	-	-	-	-	12,376	11,618	10,249	11,356	16,091	16,309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www.garak.co.kr)

□ 샤인머스켓을 제외하고 2018년 소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종은 거봉으로, 상품 8,006원/kg, 중품 6,932원/kg으로 집계됨

- 뒤이어 상품의 경우 캠벨얼리 6,819원/kg, MBA 5,636원/kg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산 포도 상품의 소매가격은 집계되지 않음
- 중품의 경우 수입산 포도 6,335원/kg, 캠벨얼리 6,030원/kg, MBA 4,916원/kg 순임
- 수입산 포도를 제외한 모든 품종의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함

<표 I -2-3> 2013~2018년 품종별 포도 평균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상품	캠벨얼리	5,769	4,339	4,872	5,060	5,633	6,819	5,415
	거봉	7,532	5,743	5,729	6,080	6,719	8,006	6,634
	MBA	5,063	3,717	3,639	4,378	4,647	5,636	4,513
	수입	-	-	-	-	-	-	-
중품	캠벨얼리	4,871	3,910	4,089	4,319	5,055	6,030	4,712
	거봉	6,632	4,980	4,948	5,136	5,789	6,932	5,736
	MBA	4,325	3,244	3,302	3,432	4,185	4,916	3,900
	수입	7,952	7,197	6,537	6,618	6,414	6,335	6,842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3. 소비현황

□ 2005년 이후 국내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18년 1인당 소비량은 4.3kg로 추정됨
 - 이는 2005년에 비해 47.6% 감소한 수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은 연평균 약 4.8%씩 감소함

〈표 1 -3-1〉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2	6.9	6.3	6.5	5.7	5.4	4.7	4.3

* 출처: KASS 국가 농식품통계 서비스,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국내 소비자의 포도의 연평균 구입액은 2만 7,508원 수준이며, 재래시장에서의 구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포도 구입액 및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액은 2만 7,508원이며 1회 평균 구입액은 6,345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포도는 주로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구입액 비중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구매되는 구입처는 재래시장(23.25%)이며, 무점포판매형(19.99%)과 함께 평균 구입액 1만 1,894원으로 전체 구입액의 43.24%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소형슈퍼마켓(18.26%), 기업형 슈퍼마켓(16.15%), 대형마트(8.46%) 순으로 구입액 분포를 보임
 - 1회 평균 구입액은 무점포판매형이 1만 4,76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9,734원), 전문점(7,169원), 백화점(6,461원)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표 1 -3-2〉 2010~2016년 연평균 국내 포도 구입처별 구입액 분포

(단위 : 원, 회, %)

구분	구입액		구매빈도		1회 평균 구입액(원)	구매가구 비율(%)
	금액(원)	비중(%)	회	비중(%)		
합계	27,508	100.00	4.34	100.00	6,345	98.90
기업형 슈퍼마켓	4,442	16.15	0.94	21.68	4,725	82.36
기타	1,807	6.57	0.19	4.28	9,734	45.67
대형마트	2,327	8.46	0.45	10.33	5,198	62.68
무점포판매형	5,500	19.99	0.37	8.59	14,762	53.39
백화점	219	0.80	0.03	0.78	6,461	9.13
소형슈퍼마켓	5,024	18.26	1.04	23.90	4,848	87.56
재래시장	6,394	23.25	1.07	24.66	5,981	72.91
전문점	1,795	6.53	0.25	5.78	7,169	42.20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업경영>농축산물가격(nongsaro.go.kr)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포도 생산량의 85% 이상은 생식용이며 가공용 소비는 10% 정도임

- 포도를 가공하여 만드는 식품에는 포도즙, 포도주스, 포도주, 포도잼, 포도 식초 등이 있음
- 국산 품종 ‘청수’는 화이트와인 가공에 쓰이는 대표적 양조용 품종임

□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한 선호가 늘고 판매량이 급증함

- 샤인머스켓은 다른 품종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씨가 없으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먹기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행하였으며, ‘망고포도’라는 명칭으로 인기를 끄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¹⁾에 따르면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지도는 63%이며,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임
- 샤인머스켓 구입 경험 또한 12% 상승하여 40%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80%가 맛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1)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8.12.27.)

4. 수출현황

1) 포도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포도는 전년대비 4.7% 감소한 약 1,275톤이 수출됨

- 동년 수출 상위 3개국으로의 수출물량은 전체 수출물량의 65.1%를 차지함
 - 2018년 베트남으로 약 329톤(25.8%)의 포도가 수출되어,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됨
 - 뒤이어 홍콩(314톤, 24.6%), 싱가포르(187톤, 14.7%) 순으로 국산 포도가 수출되고 있음
- 2015년 한·중 간 포도 검역 협상 타결로 시작된 對중국 수출이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187%의 큰 폭으로 증가함
 - 초기에는 캠벨얼리와 거봉을 중심으로 수출하였으나 품질이 유사한 중국산 포도에 비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
 - 그러나 중국 내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샤인머스켓이 2018년 對중국 포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출량 증가를 견인함
- 최근 3년간 베트남으로의 수출 성장률이 76.7%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뒤이어 중국(61.0%), 캐나다(49.4%) 순으로 나타남

〈표 1 -4-1〉 2009~2018년 한국 포도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606	471	323	345	430	583	813	1,032	1,218	1,275
1 베트남	14	11	13	9	19	47	36	106	233	330
2 홍콩	92	50	50	70	40	59	102	222	269	314
3 싱가포르	85	73	71	76	133	140	173	178	225	187
4 미국	311	225	127	117	153	226	262	234	185	129
5 중국	-	-	4(kg)	-	-	-	47	37	7	96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 품종에는 캠벨얼리와 거봉이 있으며, 최근에는 샤인머스켓의 생산 확대 및 수출 지원으로 국산 포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특유의 달콤한 향과 고품질로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음
 - 또한 과육이 단단하여 보관기간이 일반 포도에 비해 길어 저장성이 우수해 수출 품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음

□ 한국산 포도는 5월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됨

- 포도의 주출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수출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9월의 수출이 최대물량을 기록함

〈표 I -4-2〉 2018년 한국 포도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13.0	11(kg)	-	-	6.0	33.6	120.3	173.3	427.4	215.0	188.9	97.3
1 베트남	9.1	-	-	-	1.4	9.4	34.9	30.7	86.3	65.8	54.0	37.6
2 홍콩	3.8	-	-	-	2.5	9.5	23.8	41.2	78.4	62.2	75.5	17.4
3 싱가포르	-	-	-	-	1.1	8.7	44.5	24.3	62.4	38.0	5.2	2.8
4 미국	-	-	-	-	-	-	40(kg)	16.6	89.0	23.1	40(kg)	-
5 중국	-	-	-	-	-	-	-	0.4	8.2	6.1	43.4	37.8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한국산 포도의 수출단가는 평균 10.9달러(한화 약 1만 2,971원)/kg으로 집계됨

- 중국으로의 수출단가가 kg당 16.9달러(한화 약 2만 111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뒤이어 베트남 13.3달러(한화 약 1만 5,827원)/kg, 홍콩 12.9달러(한화 약 1만 5,351원)/kg 순임

〈표 I -4-3〉 2009~2018년 한국 포도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3.4	4.0	4.1	4.0	4.0	3.9	4.0	5.0	7.0	10.9
1 베트남	2.4	3.3	4.6	3.7	3.2	3.2	4.5	5.7	9.7	13.3
2 홍콩	2.7	6.0	4.7	4.2	5.8	5.7	5.3	6.2	8.6	12.9
3 싱가포르	4.4	4.1	3.5	3.6	3.1	3.1	3.8	4.8	6.3	8.3
4 미국	3.3	3.6	4.0	3.9	3.8	3.6	3.3	3.4	3.4	4.4
5 중국	-	-	1.3	-	-	-	3.3	4.2	11.0	16.9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9년 주요 수출포도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9.91달러(한화 약 1만 1,793원)로 집계됨²⁾

- 이 중 샤인머스켓의 평균 수출단가가 kg당 18.1달러(한화 약 2만 1,539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기준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7월 kg당 20.1달러(한화 약 2만 3,919원)로 가장 높은 수준에 수출되었으며, 8월 18.8달러(한화 약 2만 2,372원), 9월 17.3달러(한화 약 2만 587원), 10월 16.3달러(한화 약 1만 9,397원)로 감소세를 보임
- 거봉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6.9달러(한화 약 8,211원)로 집계됨
 - 거봉 역시 7월의 수출단가가 7.4달러(한화 약 8,806원)/kg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8월의 수출단가는 kg당 7.0달러(한화 약 8,330원), 9월 6.8달러(한화 약 8,092원), 10월 6.4달러(한화 약 7,616원)로 나타남
- 캠벨얼리의 경우 kg당 평균 3.2달러(한화 약 3,808원)로, 주요 포도 수출품종 중 가장 저가에 수출되고 있음
 - 캠벨얼리는 9월의 수출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7월 kg당 4.7달러(한화 약 5,593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월 5.2달러(한화 약 6,188원), 9월 6.2달러(한화 약 7,378원)를 기록한 뒤 10월 4.9달러(한화 약 5,831원)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표 1 -4-4〉 2019년 한국산 주요 수출품종의 수출단가

구분	(단위: 달러/kg)				
	7월	8월	9월	10월	평균
샤인머스켓	20.1	18.8	17.3	16.3	18.1
거봉	7.4	7.0	6.8	6.4	6.9
캠벨얼리	4.7	5.2	6.2	4.9	3.2

* 출처: 한국포도수출연합회

2)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수출품종(샤인, 거봉, 캠벨)의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임. 한국포도수출연합회

2) 對베트남 수출추이

□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對베트남 국산 포도 수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매년 100톤 이상 늘고 있음

- 2018년 수출량은 약 330톤으로, 2015년 36톤 수준에서 4년 동안 연평균 108.9% 증가함
- 주로 수출되던 캠벨얼리가 현지에서 경쟁력이 낮아 수출이 확대되지 못하다가 2016년 들어 샤인머스켓, 거봉 등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표 I -4-5〉 2009~2018년 포도 對베트남 수출현황

(단위 : kg)				
2009	2010	2011	2012	2013
13,570	11,440	12,988	8,610	19,072
2014	2015	2016	2017	2018
46,670	36,132	105,601	232,551	329,561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Kstat(stat.kita.net)

□ 2018년 한국산 포도의 對베트남 수출단가는 kg당 13.33달러(한화 약 1만 5,827원)로 전체 수출단가보다 높은 수준임

- 2014년 이후 對베트남 수출단가는 전체 수출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이는 베트남 내 수입산 포도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수출단가가 높은 샤인머스켓의 수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I -4-6〉 2013~2018년 對베트남 수출단가 변동추이

(단위 : 달러/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對세계 수출단가	4.0	3.9	4.0	5.0	7.0	11.0
對베트남 수출단가	3.2	3.2	4.5	5.7	9.7	13.3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월별 수출액 기준 9월~11월 수출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對베트남 수출액은 252만 8,000달러(한화 약 30억 8,012만 원)로 집계됨

- 한국산 포도의 주출하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액이 연중 수출액의 34.7%를 차지함

〈표 I -4-7〉 2018년 월별 포도 수출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對베트남 수출액	65	0	0	0	22	141	593	449	819	879	830	594
월별 비중	1.5	0.0	0.0	0.0	0.5	3.2	13.5	10.2	18.6	20.0	18.9	13.5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Kstat(stat.kita.net)

- 베트남으로 국산 포도 수출 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나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표 I -4-8〉 2018년 베트남 포도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0806.10-00	포도(신선한 것)	10%	0%	0%

* 출처 :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II. 베트남 시장현황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레드추기경, NH 01-48, NH 01-152 등이 있음
- 주로 레드추기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청포도인 NH 01-48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해충 및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NH 01-152가 최근 고품질의 새로운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음

〈표 II-1-1〉 주요 포도 품종

종류	사진	특징
레드추기경 (Card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신선한 상태로 소비하며, 과피가 얇고 붉은색을 띠 · 과방중은 300g, 과립중은 4.5g 정도임 · 과실은 둥근 모양으로 완숙 시 당도는 16° Bx 정도임
NH 01-48 (Green gr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과피는 두꺼운 편으로 녹색을 띠 · 과방중은 350g, 과립중은 6g 정도임 · 과실이 길쭉한 모양으로 씨앗이 없으며 완숙 시 당도는 18° Bx 정도임 · 과육은 타원형으로 과피와 분리가 쉬움
NH 01-152 (Mariaue f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밝은 빨간색을 띠 · 과방중은 450g, 과립중은 6.5g 정도임 · 과실이 길쭉한 모양으로 완숙 시 당도는 18° Bx 정도임 · 과육은 육질이 두껍고 단단함
NH 0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자흑색을 띠 · 과방중은 300g, 과립중은 6g 정도임 · 과실은 둥근모양이며 완숙 시 당도는 16° Bx 정도임

<p>NH 02-90 (Syra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와인 등 가공 용도로 소비됨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자흑색을 띠며 • 과방중은 300g, 과립중은 2.5g 정도임 • 과실은 둥근모양이며 완숙 시 당도는 18° Bx 정도임
<p>NH 01-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녹황색을 띠며 • 과방중은 300g, 과립중은 5.5g 정도임 • 과실은 둥근모양이며 완숙 시 당도는 17° Bx 정도임
<p>손가락포도 (finger gra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마녀포도라고 불리기도 함 • 과피는 짙은 보라색으로 과립이 손가락처럼 길쭉한 모양임 • 씨앗이 없으며 과육은 육질이 두껍고 과즙이 많음
<p>우디 포도 (American grape 또는 earth gra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명은 'Jaboticaba grapes' 로 남아메리카에서 유래한 품종임 • 수명이 길며, 열매가 줄기에서 자라지 않고 가지에 붙어서 자라는 것이 특징임 • 과피는 짙은 보라색으로 광택이 남
<p>프랑스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과피는 짙은 자주색임 • 과육은 달콤하고 신맛이 나며 씨가 거의 없고 육질이 두꺼우면서 부드러움 • 다른 포도 품종(3년)에 비해 1년 내에 빠른 수확이 가능함

* 출처: nha ho 농업연구원, 베트남 농업아카데미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7년(최신자료) 베트남의 포도 생산량은 2만 8,700톤으로 전년대비 약 7% 증가함

- 베트남에서는 국내 포도 수요가 생산량을 초과하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생산량 전량이 국내 소비되고 있음

〈표 II -1-2〉 2009~2017년 베트남 포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배면적	1,200	900	800	800	900	1,100	1,400	1,400	1,300
생산량	24,000	16,700	14,700	16,300	19,200	23,900	31,000	26,800	28,700

* 출처 :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www.gso.gov.vn)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베트남 남동부의 닌 투안(Ninh Thuan) 지역은 베트남의 포도 주생산지임

- 2018년 9월 기준, 닌 투안 지역은 1,244ha 이상의 포도 재배면적에서 평균 연간 약 3만 톤의 포도를 생산함³⁾
 - 2000년 이전에는 전 재배지에서 레드추기경 품종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약 80%의 면적에서만 레드추기경 품종을 재배하며 나머지 20%는 NH 01-48(Green grape) 등 새로 수입된 포도 품종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닌 투안 지역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으로 재배에 유리한 조건임
 - 전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습도가 낮으며(평균 70~75%), 연간 강우량이 800mm이하로 나타남⁴⁾
- 2012년 닌 투안 포도는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지리적표시를 받음
 - 원산지추적을 위해 지리적표시 및 인증마크, 전자스탬프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현재 해당 지역은 품종연구 등 포도재배산업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포도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포도 및 포도 가공품을 전시하고 포도원 관광 프로그램이 포함된 ‘포도 및 와인 축제’ 를 개최함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포도는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의 ‘신선한 과일 포도에 관한 국가표준 TCVN 10743 : 2015’ 에 따른 품질규정을 준수해야 함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포도는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모든 등급에 적용되는 최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파열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불순물이 없어야 함

3) Giải pháp phát triển bền vững cây nho Ninh Thuận, 베트남 뉴스 에이전시(Thông tấn xã Việt Nam), 2018.09.24

4) 닌투안(Ninh Thuan)에서 진행되는 2019년 포도 및 와인 축제 정보, 나우베트남(NowVietnam), 2019.05.02

- 외관이 유해한 미생물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함
- 과피에 비정상적인 습기가 없어야 함
- 냄새 및 맛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저온 또는 고온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함
- ‘특별’ 등급의 경우 하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이 등급의 포도는 최고 품질이어야 함
 - 과일 날단은 재배 지역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색깔이 동일해야 함
 - 열매는 단단하고 가지에 단단히 붙어 고르게 분포되며, 과분이 거의 남아 있어야 함
 - 포장의 외관 및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매우 가벼운 결함을 제외하고는 과일에 결함이 없어야 함
- ‘I’ 등급의 경우 하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이 등급의 포도는 좋은 품질이어야 함
 - 과일 날단은 재배 지역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색깔이 동일해야 함
 - 열매는 단단하고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며 과분이 거의 남아있으나, ‘특별’ 등급과 같이 가지를 따라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미한 결함은 허용되지만 포장의 외관 및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형태와 색상의 가벼운 결함과 약간의 황갈색 과피는 허용함
- ‘II’ 등급의 경우 하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이 등급의 포도는 위 등급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최소요구사항은 충족해야 함
 - 품종 및 재배 지역의 기본 특성을 보장 할 수 있다면 모양, 크기 및 색상에 가벼운 결함을 허용할 수 있음
 - 열매는 단단하고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며, ‘I’ 등급과 같이 가지를 따라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음
 - 결함을 허용하면서도 포장에 제품의 품질과 표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품질의 특성을 유지해야 함
 - 형태와 색상의 결함과 약간의 황갈색 과피, 약간의 손상, 과피의 약간의 장애는 허용함

- 블랙시들리스, 크림슨시들리스, 세이블시들리스, 샤인머스켓 등 수입산 포도는 대부분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품종이 명시되지 않는 제품 또한 ‘씨 없는 포도’ 라는 문구가 라벨에 기재됨
- 베트남의 신선 과일 수입업체 및 소비자 인터뷰 결과, 베트남 소비자들은 씨가 없고 껍질째 섭취할 수 있는 포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씨 없는 포도가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임
- o 한국산 포도는 거봉과 샤인머스켓이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됨
 - 베트남 대형마트(VinMart)에서는 거봉(KHOYO GRAPES)이 판매되며,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에서는 샤인머스켓이 판매됨
 - 거봉은 주로 선물용 및 제사용으로 소비되며, 샤인머스켓은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됨
 - 대형 한인마트(K-Market)에 따르면, 한국산 캠벨 포도를 수입 및 유통한 적이 있으나 베트남 소비자들은 캠벨 포도 특유의 와인 맛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2〉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포도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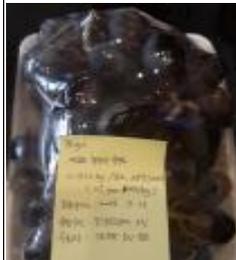
사진					
원산지	한국산	미국산	호주산	호주산 포도(L1)	베트남
제품명	거봉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포도	L1(1등급) 포도	판낭포도
구매처	VinMart	VinMart	Co.op Mart	Co.op Mart	Lotte Mart
가격	222,733VND (한화 약 1만 1,403원)	51,814VND (한화 약 2,652원)	114,851VND (한화 약 5,880원)	82,216VND (한화 약 4,209원)	71,638VND (한화 약 3,667원)
중량	474g	352g	732g	524g	602g
사진					
원산지	미국산	미국산	호주산	한국산	호주산
제품명	샤인머스켓	씨 없는 흑포도	포도	샤인머스켓	씨 없는 흑포도
구매처	Klever Fruits	Klever Fruits	Big C	Klever Fruits	Big C
가격	626,430VND (한화 약 3만 2,070원)	404,190VND (한화 약 2만 694원)	62,446VND (한화 약 3,197원)	959,400VND (한화 약 4만 9,120원)	82,289VND (한화 약 4,213원)
중량	1,570g	810g	504g	600g	710g

사진					
원산지	베트남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남아프리카
제품명	베트남산 포도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긴 흑포도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흑포도
구매처	Big C	VinMart	Co.op Mart	Big C	Co.op Mart
가격	60,535VND (한화 약 3,099원)	141,606VND (한화 약 7,250원)	113,822VND (한화 약 5,827원)	158,039VND (한화 약 8,091원)	195,580VND (한화 약 1만 원)
중량	994g	962g	584g	732g	604g

* 출처: 베트남 현지조사(2019.07.23.-2019.07.25.)

□ 수입과일 판매점에서의 포도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에서 판매되는 포도 가격대는 kg당 평균 832,333동 (한화 약 4만 3,531원) 수준임⁶⁾
- 수입과일 판매점과 대형마트(VinMart)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블랙시들리스 제품 가격은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수입과일 판매점의 미국산 블랙시들리스 제품은 kg당 499,000동(한화 약 2만 6,097원)으로, kg당 147,200동(한화 약 7,698원)에 판매되는 대형마트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됨

<표II-2-3> 유통채널별 미국산 포도(블랙시들리스) 가격 비교

사진		
판매처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	대형마트(VinMart)
가격	404,190VND(한화 약 2만 694원) / 0.8kg (1kg당 499,000동, 한화 약 2만 6,097원)	51,814VND(한화 약 2,652원) / 0.352kg (1kg당 147,200동, 한화 약 7,698원)

6) 해당 가격은 산지별, 품종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미국산에 비해 적은 중량에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수입과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샤인머스켓 0.6kg 중량의 제품 가격은 959,400동(한화 약 5만 176원)인 것에 비해, 미국산 샤인머스켓은 1.57kg 제품이 626,430동(한화 약 3만 2,762원)에 판매됨
 - 가격 비교 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1kg당 1,599,000동(한화 약 8만 3,627원)에 판매되고 미국산 제품은 1kg당 399,000동(한화 약 2만 867원)에 판매되고 있어,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포도 제품의 포장형태는 1~2송이씩 포장용기에 담아 플라스틱(비닐) 랩을 씌운 소포장형태가 일반적임
 - 포장용기의 재질 및 형태는 유통채널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유통채널에서 자체적으로 포장하여 유통되고 있음
 - 수입과일 판매점에서는 주로 종이로 제작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며, 일부 제품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기도 함
 - 수입과일 판매점 자체 상표를 제품에 부착한 것이 특징임
 -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포도는 대부분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플라스틱(비닐) 랩으로 덮인 상태로 판매됨
 - 미국산 및 호주산 포도 제품의 일부는 손잡이가 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로 판매되는데, 생산지에서 포장되어 수입 및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 거봉은 플라스틱 비닐과 포장재로 제품을 감싼 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형태로 유통됨
 - 포장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한국산임이 기재됨

〈표II-2-4〉 유통채널별 포도 포장형태 비교

사진				
판매처	수입과일 판매점 (Klever Fruits)	대형마트 (Saigon Co.op Mart)	대형마트 (Saigon Co.op Mart)	대형마트 (VinMart)
포장 형태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재와 종이 재질의 포장용기를 사용함	스티로폼 용기에 제품을 담고 플라스틱(비닐) 랩을 씌움	손잡이가 있는 비닐봉지에 담김	포장재로 제품을 감싼 후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함

- 샤인머스켓은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어, 선물용 과일세트 구성에 포함되는 상품임
 - 샤인머스켓은 알이 크고 색택이 좋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음
 - 이에 따라, 샤인머스켓 단일상품을 선물용으로 포장하기도 하며 다른 과일과 함께 선물용 세트제품으로 구성하기도 함

〈그림 II-2-1〉 선물용 샤인머스켓 포장 형태



* 출처 : 베트남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 매장방문 사진 및 홈페이지(<http://kleverfruits.com.vn>)

-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의 포도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산 포도의 당도는 중간수준, 중량은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베트남산 및 수입산 포도 15개 제품 중 남아프리카산 포도(품종 미상)의 당도가 20° Bx로 가장 높은 당도로 측정됨
 - 한국산 포도는 샤인머스켓 15° Bx, 거봉 14° Bx로 측정되었는데, 샤인머스켓의 경우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당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산 포도의 당도는 블랙시들리스(평균 18.5° Bx), 세이블시들리스(17° Bx), 샤인머스켓(15° Bx) 순으로 높게 나타남⁷⁾
 - 호주산 크림슨시들리스 및 기타 포도의 당도는 17~18° Bx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베트남산 포도는 11~12° Bx 수준으로, 수입산 포도보다 확연히 당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제품 당 평균중량은 미국(835g), 베트남(798g), 호주(617.5g), 남아프리카산(604g), 한국(537g) 순임
 - 미국산 샤인머스켓 한 송이의 중량은 1,570g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보다 두 배 가량 무거운 것으로 나타남

7) 품종이 확인되는 제품에 한해 당도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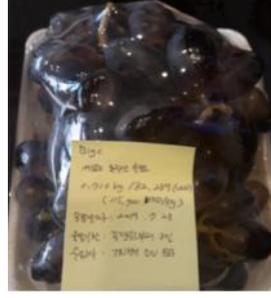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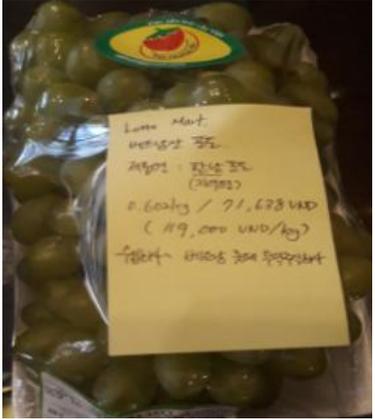
사진					
	품종	거봉	샤인머스켓	블랙시들리스	블랙시들리스
	산지	한국산	한국산	미국산	미국산
	중량	474g	600g	352g	810g
	당도	14° Bx	15° Bx	20° Bx	17° Bx
사진					
	품종	샤인머스켓	N/A	세이블시들리스	씨 없는 흑포도
	산지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중량	1,570g	732g	962g	584g
	당도	13° Bx	13° Bx	17° Bx	15° Bx
사진					
	품종	크림슨시들리스	N/A	N/A	N/A
	산지	호주산	호주산	호주산	호주산
	중량	732g	524g	504g	710g
	당도	18° Bx	18° Bx	18° Bx	17° Bx

사진				
	품종	N/A	N/A	N/A
	산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판랑)	베트남
	중량	604g	602g	994g
	당도	20° Bx	11° Bx	12° Bx

□ 베트남 현지 소비자(7인)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유통되는 15개 포도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결과, 한국산 거봉 포도와 샤인머스켓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맛과 향, 외관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산 거봉과 샤인머스켓 및 호주산 포도(품종 미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뒤이어 미국산 샤인머스켓과 블랙시들리스 포도의 선호도가 높음
-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포도는 대부분 씨가 없는 품종임
 - 베트남 소비자들은 씨가 없고 껍질째 섭취할 수 있는 포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포도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 씨와 껍질로 인해 섭취 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확인됨
-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베트남산 포도를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베트남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에 비해 떫은맛이 강하다고 응답함

<그림 II-2-2> 베트남 현지 소비자 대상 포도 반응조사 모습



3. 소비현황

□ 베트남에서는 포도를 주로 신선한 상태로 소비함

- 가정에서는 스무디나 와인, 잼이나 시럽 등으로 만들어 섭취하기도 하며 샐러드의 재료로 쓰이기도 함
- 가공용 소비로는 와인, 주스 등이 있으며 건포도로 가공한 후 재판매되기도 함
 - 알코올 및 청량음료 가공에는 열과나 저품질의 포도가 사용되며 그 비율은 약 5% 정도로 추정됨

□ 베트남에서 포도는 다른 수입산 과일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일로 흑포도, 적포도, 청포도가 두루 소비됨⁸⁾

- 수입산 포도 중에서는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포도 판매량이 많은 편임
 - 흑포도는 당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선호도가 높으며, 보관기간이 긴 것 역시 장점으로 인식됨
- 포도는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저렴한 품목들이 존재하여 베트남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임⁹⁾
 - 중국산 샤인머스켓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저가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특히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가격대가 매우 높아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¹⁰⁾
 - 그러나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맛이 좋고 미국산과 유통시기가 겹치지 않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¹¹⁾
 - 미국산 샤인머스켓은 9월 유통이 종료되며, 이 시기부터 한국산이 유통됨
 - 전반적으로 한국산 포도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샤인머스켓의 경우 1kg 정도의 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8) 현지 유통업체 Saigon Co.op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9) 현지 유통업체 AEON CITIMAR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10) 현지 수입업체 HAPRO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11) 현지 수입업체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 베트남 소비자는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포도를 선호하며, 와인 향이 나는 포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¹²⁾¹³⁾
 - 이에 캠벨얼리보다는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나 가격대가 높아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며,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높음

-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산 포도를 선호하며 중국산을 제외한 수입산 포도에 대해 신뢰도가 높음
 - 수입산 과일은 위생적이고 전문적으로 생산되며 안전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한국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고급품으로 인식됨
 - 중국산 포도는 길거리에서 싼 가격에 판매되며 미국산이나 호주산, 넌 투안산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품목임
 - 중국산 포도에는 농약 및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고 선호도가 떨어짐

12) 현지 수입업체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13)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K-MARKE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4. 수입현황

1) 베트남 포도 수입현황

□ 2018년 베트남의 포도 수입물량은 약 9만 4,470톤으로 조사됨

-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입 상위 3개국의 비중이 83.7%에 달함
 - 중국산 포도 수입물량은 6만 7,922톤으로 전체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미국산 포도 수입물량은 1만 3,313톤으로 약 14%를 차지함
- 한국산 포도는 2013년부터 수입량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2018년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함
 - 이는 한국산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더불어 샤인머스켓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동년 수출물량은 329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4-1〉 2009~2018년 베트남 포도 수입물량(추정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49,773	39,285	46,377	41,443	46,938	57,279	70,497	73,122	97,619	94,470
1	중국	36,986	26,390	32,720	25,288	24,228	32,271	52,090	54,203	77,936	67,922
2	미국	5,534	6,956	6,084	6,437	7,756	7,316	5,492	7,769	8,595	13,313
3	호주	4,645	1,539	2,724	3,954	7,548	10,710	48	4,465	5,423	4,832
4	남아프리카공화국	315	786	505	661	1,759	1,927	4,043	1,875	2,881	4,086
5	칠레	729	1,555	1,610	1,880	2,029	1,256	1,847	1,244	1,565	2,014
6	페루	991	1,050	1,103	1,797	654	1,265	2,697	1,374	-	1,163
7	홍콩	369	647	1,230	748	2,337	1,788	3,348	1,716	76	560
8	한국	14	11	13	9	19	47	36	106	233	329

* 주1: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 주2: 베트남 포도 수입통계는 각국의 對베트남 포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베트남에서 포도는 연중 수입되며 수입물량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0월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10월 베트남의 포도 수입물량은 1만 8,717톤으로, 그 중 중국산 포도가 86.6%를 차지함
 - 뒤이어 미국산 포도 28.97%(3,276톤), 페루산 1.02%(115톤), 한국산 0.5%(54톤)로 나타남

- 반면 수입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4월로, 총 1,033톤의 포도가 수입됨
 - 칠레산 포도의 수입비중은 88.19%로 911톤이 수입되었으며, 뒤이어 중국산 6.39%(66톤), 말레이시아산 4.74%(49톤)로 나타남
- 한국산 포도는 5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익년 1월까지 진행됨
 - 저장포도의 물량이 소진하는 2월 이후부터 4월까지의 수입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표 II-4-2〉 2018년 베트남 포도 월별 수입물량(추정치)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중국	2,403	1,510	446	66	730	3,363	8,642	10,179	12,520	16,213	7,865	3,985
2	미국	32	-	-	-	13	197	930	2,168	2,400	2,400	3,276	1,899
3	호주	436	892	1,689	1,301	417	40	-	-	-	58	-	-
4	남아프리카	1,442	956	1,028	-	-	-	-	-	-	-	-	659
5	칠레	42	105	399	911	826	-	-	-	-	-	-	-
8	한국	9	-	-	-	1	9	35	31	86	66	54	38

* 주1: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 주2: 베트남 포도 수입통계는 각국의 對베트남 포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베트남의 연평균 포도 수입단가는 2.9달러(한화 약 3,451원)/kg로 집계됨

- 주요 수입국 중 한국산 포도의 수입단가가 10.2달러(한화 약 1만 2,138원)/kg로 가장 높은 가격대로 수입되고 있음
-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산 포도는 1.2달러(한화 약 1,428원)/kg에 수입되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kg당 2.5달러(한화 약 2,975원)로 나타남
- 호주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수입단가는 각각 kg당 1.9달러(한화 약 2,261원)와 0.9달러(한화 약 1,071원)로 집계됨

〈표 II-4-3〉 2018년 베트남 포도 월별 수입단가(추정치)

		(단위: 달러/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	중국	2.5	2.9	3.1	2.9	2.8	-	-	-	-	-	-	-	1.2	
2	미국	3.3	-	-	-	3.2	4.9	3.9	3.1	2.9	2.9	2.7	2.8	2.5	
3	호주	4.2	3.8	3.6	3.4	3.5	2.8	-	-	-	0.9	-	-	1.9	
4	남아프리카	2.5	2.9	2.7	-	-	-	-	-	-	-	-	2.4	0.9	
5	칠레	2.7	2.7	2.7	2.6	2.2	-	-	-	-	-	-	-	1.1	
8	한국	7.2	-	-	-	15.0	15.0	17.0	15.0	9.49	13.0	15.0	16.0	10.2	

* 주1: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 주2: 베트남 포도 수입통계는 각국의 對베트남 포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품종으로는 적포도, 흑포도, 청포도 등 대부분의 포도 품종이 두루 유통되고 있음¹⁴⁾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포도의 종류는 20가지 이상으로, 주로 씨가 없고 진한 자색의 흑포도와 씨가 없는 적포도로 분류됨
 -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20,000 ~ 250,000VND(한화 약 6,072원 ~ 1만 2,650원)/kg¹⁵⁾ 정도이며 적당한 가격에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음
- 호주산 포도는 흑포도, 홍포도, 청포도로 대부분 씨가 없음
 - 다른 수입 포도에 비해 품질, 맛 및 당도 면에서 높이 평가됨
 - 미국산 포도보다 비싼 편으로, 1kg 당 230,000 ~ 350,000VND(한화 약 1만 1,638원 ~ 1만 7,710원) 수준임
- 한국산 포도는 비교적 크기가 크며 샤인머스켓과 흑포도, 캠벨얼리가 있음
 - 특히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독특한 특성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며, 일본산 샤인머스켓에 비해 저렴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음
 - 현지 소매유통채널인 VinMart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포도 가격은 1kg 당 300,000 ~ 600,000VND(한화 약 1만 5,750원 ~ 3만 1,500원)에 판매됨

2) 수입제도 및 규격

가. 통관 및 검역

□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검사, 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입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름

- 통관에는 약 5~7일이 소요되며,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 중 하나로 분류됨
 - Green Channel(저위험) 물품은 수입신고 이외에 별도의 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가 면제됨
 - Red Channel(고위험) 물품은 서면서류심사 및 현품검사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무작위검사로 이루어짐

14) 한국산 포도, 베트남 소비자 눈길 사로잡아, Lifeplaza, 2018.02.21

15) VND 1 = 0.05원 기준

□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MOH) 및 보건부 산하 식품관리청 (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에서 농식품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 보건부 및 식품관리청에서는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및 포장 용기 등을 규제하고 있음
- 베트남 식품관리청 산하 식품안전 및 위생담당국은 식품안전과 위생, 품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나. 라벨링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포도는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의 ‘신선한 과일 포도에 관한 국가표준 TCVN 10743 : 2015’에 따른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모든 포장식품에 적용되는 라벨링 규정 ‘TCVN 7087 : 2013 (CODEX STAN 1-1985, Amd. 7-2010)’에 더해 하기의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매용 포장은 외부에서 제품을 볼 수 없는 경우 각 포장에 제품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며, 상업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소매용 포장이 아닌 경우 각 제품 포장에 다음의 정보가 한쪽 면에, 쉽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으며,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 식별표시: 수출업자, 포장업자 및 화주의 이름과 주소, 식별 번호(선택사항)
 - 상품명: 외부에서 제품을 볼 수 없는 경우 “신선 포도” 또는 제품의 이름, 품종 및 상호명
 - 원산지: 원산지 및 재배 지역(선택사항) 또는 지역 또는 지방의 이름
 - 등급, 순중량(선택)
 - 검인(선택사항)

다. 인증

□ 베트남에서 생산된 신선 청과물에는 VietGap 인증이 적용됨

- 2008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을 보장하는 우수 관리인증인 VietGap 규정을 제정 및 도입함
- 2017년 10월 새로운 VietGAP 규정 ‘TCVN 11892-1 : 2017’로 개정되었음
- VietGap 규정은 아세안 기준 인증제도(ASEANGAP)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농산물품질인증제도인 GlobalGAP(Global Good Agricultural Practice) 및 일본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JGAP 등을 참조함
- 생산기술, 식품안전, 작업환경, 상품원산지의 4가지 주요 표준이 있음

- VietGAP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생산지명과 라벨을 부착함

<그림 II-4-1> VietGAP 인증 라벨



*출처 : 베트남 식물재배관련 사이트 VietGap(www.vietgap.com)

라. 안전성

-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보건부 2016년 12월 30일자 시행규칙 ‘50/2016/TT- BYT 식품 중 살충제의 최대잔류 허용기준’ 을 따름
 - 해당 기준에 따른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총 85개로 하기와 같음

<표 II-4-4> 베트남 포도 잔류농약 허용기준

순번	성분명	기준치 (단위: mg/kg)
1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	0.15
2	델타메트린(Deltamethrin)	0.2
3	디노캡(Dinocap)	0.5
4	디노테푸란(Dinotefuran)	0.9
5	디클로란(Dicloran)	7
6	디클로베닐(Dichlobenil)	0.05
7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15
8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5
9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3
10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0.9
1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2
12	말라티온(Malathion)	5
13	메탈락실(Metalaxyl)	1
14	메토밀(Methomyl)	0.3
15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1
16	메트라페논(Metrafenone)	5
17	메티다티온(Methidathion)	1
18	멤틸디노캡(Meptyldinocap)	0.2
19	베날락실(Benalaxyl)	0.3
20	보스칼리드(Boscalid)	5
21	뷰프로페진(Buprofezin)	1
22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2
23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0.7
24	사이클록시딤(Cycloxydim)	0.3

25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0.2
26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3
27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0.6
28	사이헥사틴(Cyhexatin)	10.3
29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0.01
30	설희사플로르(Sulfoxaflor)	2
31	스피네토람 (Spinetoram)	0.3
32	스피노사드(Spinosad)	0.5
33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0.2
34	스피로테트라멧(Spirotetramate)	2
35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6
36	아미트롤(Amitrole)	0.05
3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5
38	아조사이클로틴(Azocyclotin)	0.3
39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2
40	알디카브(Aldicarb)	0.2
41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0.03
42	에테폰(Ethephon)	1
43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	4
44	에톡사졸(Etoxazole)	0.5
45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
46	이프로드이온(Iprodione)	10
47	인독사카브(Indoxacarb)	2
48	족사마이드(Zoxamide)	5
49	카벤다짐(Carbendazime)	3
50	퀴녹시펜(Quinoxyfen)	2
51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1
52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3
53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5
54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1
55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7
56	클로펜테진(Clofentezine)	2
57	테부코나졸(Tebuconazole)	6
58	테부페노지드(Tebufenozide)	2
59	톨릴플루아니드(Tolyfluanid)	3
60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0.3
61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0.3
62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3
63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3
64	파목사돈(Famoxadone)	2
65	퍼메트린(Permethrin(Permetrin))	2
66	페나리몰 (Fenarimol)	0.3
67	페나미돈(Fenamidone)	0.6
68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1
69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	5
70	펜코나졸(Penconazole)	0.2
71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0.1
72	펜헥사미드(Fenhexamid)	15
73	포스멧(Phosmet)	10
74	폴펫(Folpet)	10
75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7

76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2
7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2
78	플루실라졸(Flusilazole)	0.2
79	플루오피람(Fluopyram)	2
80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2
81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0.8
82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2
83	피리메타닐(Pyrimethanil)	4
84	할록시포프(Haloxypop)	0.02*
85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	1

* 주: *은 측정한계 최대치임

* 출처 : 베트남 보건부(www.moh.gov.vn)

Ⅲ. 시장현황 비교 · 분석

1. 시장현황 비교

□ 2018년 한국산 포도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미미한 편으로 對베트남 수출량 역시 매우 적은 편임

- 동년 국내 포도 생산량 중 약 0.7%를 차지하는 1,275톤만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對베트남 수출량 역시 330톤에 불과함
- 그러나 對베트남 수출단가는 국내 도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형성된 바, 對베트남 수출 매리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구분		한국	베트남
생산	생산량(2018)	175,399톤	28,700톤(2017년)
	출하시기	8~11월	N/A
	생산품종	캠벨, MBA, 거봉, 샤인머스켓 등	레드추기경(Cardinal), NH 01-48, NH 01-152 등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캠벨] 4,068원/kg [MBA] 3,788원/kg [거봉] 7,142원/kg [샤인머스켓] 13,003원/kg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1,275톤 / [베트남] 330톤(0.2%)	[전체] 94,470톤 / [한국산] 329톤(0.3%)
	수출입가격(2018)	[평균] 12,971원/kg / [베트남] 15,827원/kg	[평균] 3,451원/kg / [한국산] 12,138원/kg
	관세율	對베트남 포도 수출 시 기본 10% 관세율 적용	

* 주1: 국내 도매가는 상(上)품 기준(평균 7,000원/kg)

* 주2: 국내 포도 품목별 수출가는 샤인머스켓 21,539원/kg, 거봉 8,211원/kg, 캠벨 3,808원/kg

* 주3: 환율기준 : 1USD=1,190.0원, 1VND=0.05원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베트남 통계청(<https://www.gso.gov.vn/>), ITC Trademap(www.trademap.org),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2. 수출국 시장분석

□ 베트남 포도는 자국산 외에도 수입산을 통해 연중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시기 측면에서 한국산 포도는 중국산, 미국산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

- 수입산 중 특히 중국산이 연중 공급되며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포도는 7~12월에 유통이 집중되고 있으나 경쟁국산 대비 미미한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베트남산	28,700톤												
수입산	중국산	67,922톤(71.9%)	■	■	■	■	■	■	■	■	■	■	■
	미국산	13,313톤(14.1%)	■				■	■	■	■	■	■	■
	호주산	4,832톤(5.1%)	■	■	■	■	■				■		
	남아공산	4,086톤(4.3%)	■	■	■								■
	한국산	329톤(0.3%)	■				■	■	■	■	■	■	■

□ 베트남에서 포도는 타 품목에 비해 일반적인 과일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수입산 포도가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포도는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는데, 한국산 거봉, 샤인머스켓이 고급 상품으로 유통되며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임
 - 한국산 주요 포도품종인 캠벨얼리는 특유의 향에 대한 거부감과 씨와 껍질로 인한 섭취 시 번거로움으로 베트남 주력 수출품종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고급 상품으로 유통되는 거봉과 특히 샤인머스켓을 주력으로 프리미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특징

소비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품목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높으며, 생식용은 수입산 포도 위주로 소비됨 · 씨가 없거나 껍질째 섭취할 수 있는 포도의 선호도가 높음 · 베트남산 포도 선호도는 낮은 편 · 중국, 미국, 호주 등 다양한 수입산 포도가 유통됨 · 짙은 포도향이 나는 상품보다 당도가 높고 떫지 않은 포도를 선호함
품질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국산 모두 당도 최소 15° Bx 이상의 고당도 포도 유통 · 호주산, 미국산 등 경쟁국산은 비교적 날개 알이 크고 줄기에 알이 짝 차 중량이 무거움 · 현지 포도 시장에서 한국산은 프리미엄으로 인식됨
한국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에 판매되어 고소득층 위주로 소비됨 · 한국산 거봉, 샤인머스켓은 고급 상품으로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 · 캠벨얼리의 경우 특유의 향과 씨, 껍질로 인해 먹기 번거롭다는 단점으로 선호되지 않음

□ 원산지별 평가

베트남산	· 품종 다양성 및 품질 낮아 수입산에 의존	중국산	· 품질수준 낮으나 가격경쟁력 보유 · 최근 샤인머스켓 시장점유율 증가세 · 일본산/한국산 포장형태로 구매 유도
미국산	· 적포도 및 흑포도 위주 · 씨 없는 포도 품종 · 증가 일반시장 수요를 담당	호주산	· 적포도 및 흑포도 위주 · 씨 없는 포도 품종 · 증가 일반시장 수요를 담당
남아공산	· 적포도 및 흑포도 위주 · 씨 없는 포도 품종 · 증가 일반시장 수요를 담당	한국산	· 송이 중량 및 사이즈가 크나 당도 떨어짐 · 고가 시장 형성 · 거봉은 주로 제수용, 샤인머스켓은 선물용으로 소비됨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베트남산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남아공산	한국산
수입단가	-	1,428원/kg	2,975원/kg	2,261원/kg	1,071원/kg	12,138원/kg
도매가	N/A	N/A	N/A	N/A	N/A	N/A
소매가	3,656원/개	N/A	(샤인)32,070원/개	4,375원/개	10,000원/개	(샤인)19,120원/개 (거봉)11,403원/개

주1) 베트남산 및 남아공산 포도 품종미상, 호주산 크립슨시들리스 및 품종미상 평균판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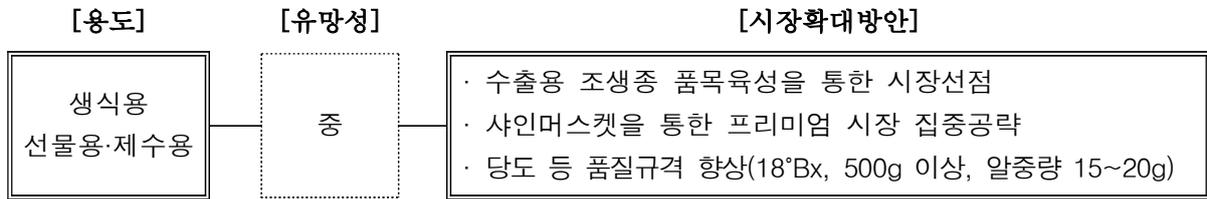
주2)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7) 시점 베트남의 소매유통채널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3) 환율기준 : 1USD=1,190.0원, 1VND=0.05원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ITC Trademap(www.trademap.org)

IV. 시장확대방안

1. 품목유망성



□ 베트남에서 포도는 소비가 일반화된 품목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경쟁국산(미국 등)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 포도는 비교적 보관이 용이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 수요가 많은 편이며, 미국산의 인지도가 높음
 - 베트남산 포도 생산량은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부족한 물량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산 포도는 품종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량이 적어 주로 수입에 의존함¹⁶⁾
 - 베트남의 포도 생산량은 2만 8,700톤(2017년 기준, 최신자료)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입량은 9만 4,470톤(2018년 기준, 추정치)으로 집계됨
 - 중국산의 비중이 71.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뒤이어 미국산 14.1%, 호주산 5.1%, 남아프리카공화국산 4.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산 포도 수입물량은 329톤으로 전체 수입의 0.3%에 불과함
 - 생식용 시장에서는 미국산, 호주산 포도의 인지도가 높으며 특히 흑포도는 보관기간이 길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¹⁷⁾
- 반면 한국산 포도는 고가에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낮으며, 주로 고소득층 소비자 위주로 소비되고 있음
 - 한국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어 타겟 소비자 층과 소비용도가 명확하게 분류됨
 - 거봉의 경우 선물용이나 제수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비되며, 샤인머스켓 역시 선물용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산은 매우 고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샤인머스켓으로 소비가 전환됨

16) 베트남 유관기관 Agortrade Vietnam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4.)

17) 베트남 소매유통채널 Saigon Co.op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3.)

□ 포도 자체에 대한 시장 내 유망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산 포도의 경우 가격대가 높고 비교적 인지도가 낮아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산 포도의 평균 수입단가는 10.2달러(한화 약 12,138원)/kg으로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미국산과 호주산의 수입단가는 각각 2.5달러(한화 약 2,975원)/kg, 1.9달러(한화 약 2,261원)/kg으로 한국산의 약 4분의 1 수준에 유통되고 있음
 - 중국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수입단가는 각각 1.2달러(한화 약 1,428원)/kg, 0.9달러(한화 약 1,071원)/kg으로 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보유함
- 한국산 포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은 높지 않으며, 베트남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샤인머스켓 및 거봉 외 품종을 통한 일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샤인머스켓 및 거봉의 프리미엄화를 통한 고급시장 공략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인머스켓은 고당도로 프리미엄으로 인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봉, 캠벨얼리는 씨와 껍질의 번거로움이 소비를 방해함 · 풍부한 과즙에 대한 거부감 존재(와인과 유사하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 수입 증가세 및 한국산 포도 연평균 증가율 276.0% · 현지 소비자의 수입산 포도 선호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품목 간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변별력이 크지 않음

S	W
O	T

2. 시장확대방안

시장확대방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 500~700g, 알 중량 13~15g, 당도 17° Bx 이상 품질기준 향상 요구 · 일본산 수준(샤인머스켓 과중 550~770g, 알 중량 15~20g, 당도 20° Bx 이상) 품질 향상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 필요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품질경쟁력 대비 합리적 가격수준 강조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국산 포도의 주요 유통시기(5~6월) 이전 공략 가능한 조생종 품종 육성으로 시장 선점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및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소비목적에 맞는 상품 제공

□ 일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조생종의 수출품목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 주요 경쟁국의 포도 유통 시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어 있는 양상으로, 9월부터 주출하하기 시작되는 한국산 포도의 유통 시기적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델라웨어, 홍단, 청수 등 조생종 품종의 경우 7월부터 출하가 시작되는데, 베트남에서 경쟁국산 포도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이전 시점인 5~6월경으로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시장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Ⅳ-2-1〉 베트남 포도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남아공산												

- 또한 수출품목의 품질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주요한 소비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반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함
- 경쟁국산 포도 대비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 제품일 경우 합리적인 (reasonable) 소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국산 동일품종 대비 당도와 규격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포도의 평균 당도는 15~20 ° Bx 수준¹⁸⁾으로, 한국산 포도의 당도기준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보임
- 또한 경쟁국산 포도의 과중은 최소 352g에서 최대 962g으로, 평균 500g 이상의 상품이 유통되며 대과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한국산 수출포도(샤인머스켓 및 거봉 외 품종)의 품질기준을 향상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임
- 캠벨얼리를 기준으로 한국의 탐프루츠 품질기준은 과중 400g±5%, 당도 15 ° Bx 이상일 경우 상품으로 선별되는데, 현지에서 유통되는 경쟁상품 대비 과가 작고 당도도 다소 떨어지는 수준임
- 이에 수출용 포도의 경우 최소 과중 500g 이상, 당도 18 ° Bx 이상 수준으로 선별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샤인머스켓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여 시장 확대

- 샤인머스켓은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품질 기준 향상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시장에서는 씨가 없고 껍질째 섭취가 가능한 포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샤인머스켓의 시장 확대 가능성은 존재함
- 이에 명확한 품질기준 설정 및 선별 시 기준준수를 통해 한국산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프리미엄 기준은 과중 500~700g, 알 중량 개당 13~15g, 당도 17 ° Bx 이상 수준임
- 베트남에서 대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샤인머스켓의 경우 과중 700g 이상일 경우 당도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해외 시장에서 가장 프리미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산 샤인머스켓의 품질 기준은 과중 550~700g, 알 중량 개당 15~20g, 당도 20 ° Bx 이상 수준으로, 과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도 개별 알의 크기와 당도 수준을 높여 프리미엄화 함으로써 베트남 내 프리미엄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지도는 최근에서야 형성되는 추세로, 청포도와 샤인머스켓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8) 블랙시들리스, 세이블시들리스, 크립슨시들리스 등 미국산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를 대상으로 한 관능검사 결과로, 샤인머스켓의 당도 값은 포함되지 않음(2019.07)

- 또한 선물용 소비가 많은 품종인 만큼 포장재와 디자인의 고급화를 통해 상품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상품의 품질을 부각하면서도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의 기능 및 디자인적 측면의 수준향상이 요구됨
- 기본적으로 샤인머스켓의 알 크기가 부각되면서도 선명한 색이 드러나도록 투명한 포장재를 통해 1차 포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 때 포도의 선도유지를 위해 비닐(포장재)에는 숨구멍을 뚫어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함
- 선물용 박스 포장, 포장재 및 디자인의 고급화 등으로 소비용도에 맞는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프리미엄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2-1> 샤인머스켓의 프리미엄 포장 예시

